‘인공지능 시대, 나의 미래준비는?’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 2일 ‘12월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12월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는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교육공동체와 전북교육 비전을 공유하면서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12월 강사로는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최재붕 교수가 참여한다.

최 교수는 ‘AI사피엔스 시대 생존전략, 2024 인공지능 시대 개막 나의 미래 준비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특히 ‘포노 사피엔스’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인간형 변화를 제시한 그는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다수의 강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

대표 저서로는 ‘AI사피엔스’,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포노 사피엔스 코드’, ‘스마트폰이 낳은 포노 사피엔스’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s://www.jbe.go.kr/parents/index.jbe)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이 본격화하는 시대에 교육과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직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미래 변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달 10일까지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 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창조나래 4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은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한다.

하반기 감사에서는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제도 △공약 이행 효과 제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시설공사 계획 수립 및 준공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총 5개 분야를 점검한다.

시민감사관들은 현장 실사와 심층 조사 등을 통해 각 정책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 결과는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교육감에게 제출되며, 교육감은 해당 감사 의견서를 검토한 후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더 청렴하고 공정한 전북교육을 위해 참여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마을 ‘연구모임 +α’ 시범수업 운영… 내달까지

(사)전통문화마을(이사장 김진형)은 ‘2024 전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모임 +α’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모임 +α는 초·중등 및 다문화 교육 부문별 멘토교사 및 연구 예술강사 다수의 인원으로 조를 편성해 각 팀의 주제를 정하고 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기획됐다.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α는 초등교육팀 3명, 중등자유학기교육팀 3명, 다문화교육팀 4명으로 총 연구강사 7명, 멘토교사 3명이 분야별 협업과 교수법 공유 등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연구모임 +α는 연구강사들과 멘토교사의 연구회의를 통해 교육안을 개발했으며, 해당 교육안을 활용한 시범수업을 진행했다. 11월 현재 초등교육팀은 ‘교과서 속 동학농민이야기’를 주제로 시범수업을 2회 진행했으며, 중등자유학기교육팀은 ‘자유학기 교육과정 중 예술 활동’이라는 주제로 시범수업을 1회 진행했다. 오는 12월에는 다문화교육팀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시범수업을 선보여질 예정이다.

한편 (사)전통문화마을은 ‘예술로 마음을 풍요롭게! 학교를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도내 초·중·고교 599곳에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사진 분야의 358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해 12월 말까지 총 6만8,864시수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따른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을 27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사진은 박성태 원광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원광대학교 제공〉

전북대, 유학생 5000명 유치 ‘박차’

양오봉 총장, 태국 대한민국대사 등 만나 국제센터 운영 지원 요청
코트라 방콕무역관장과 해외 취업 기회 확대 협력 방안 논의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태국 내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9~23일 태국을 방문한 양오봉 총장은 박응민 태국 주재 대한민국대사와 최원석 태국 한국교육원장을 차례로 만나 태국에 개설된 전북대학교 제1호 랑싯 JBNU 국제센터의 운영 지원을 요청하고, 태국 학생들의 원활한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양 총장의 이번 방문은 전북대 유학 예정인 태국 학생들이 입학 준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국 간 교육 교류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김용성 코트라(KOTRA) 방콕무역관장을 만나 전북대 학생들의 해외 취업 및 인턴십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최랑 디자인엠 대표, 임준호 지두방 지마켓 대표, 박서우 무브망 대표 등을 만나 태국 내 교민과 기업 직원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북대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전북대 관련 입학 정보 제공과 졸업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기업 채용 확대에 대한 논의와 한국인 학생들의 태국 내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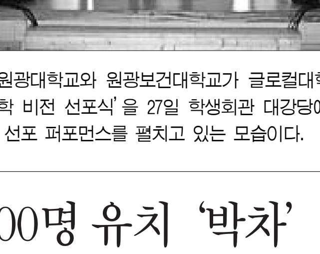
양오봉 총장은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쉽게 전북대에서 공부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태국에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대학에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우리 학생들도 보다 폭넓은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인재관의 10년 역사 돌아보다

전북대, 글로벌인재관 설립 10주년 기념 사진전… 내일까지

전북대학교 글로벌인재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가 29일까지 글로벌인재관 1층 글로벌프론티어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국제인문사회학부(학부장 신보람)와 공공인재학부(학부장 정태종)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25일 오후 글로벌융합대학 문경연 학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글로벌인재관은 구 학습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이번 사진전은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건물의 상징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글로벌인재관의 전경, 건물 내 다양한 시설물, 그리고 그곳에서 쌓아온 추억과 사연을 담은 작품들이 출품됐다.

특히 국제인문사회학부와 공공인재학부에서는 각각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2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시상했다.

선정된 전시작들은 글로벌인재관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건물이 지닌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글로벌융합대학 강문경 부학장은 “이번 사진전이 글로벌인재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학과장 안득수)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전 전북대 총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벤처정신, 알래스카와 수어드폴리(Seward's folly)’라는 주제로 생명자원융합학과 재학생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에서 이 원장은 낙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혁신과 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 사회는 모범생이 아닌 스스로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 재임 시절에도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정문, 법학전문대학원, 컨벤션센터 및 건지광장 등 캠퍼스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장은성 기자

인공지능 생성물 소유 문제 살피다

전주대 김시열 교수,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출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 김시열 교수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소유 문제를 살펴본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를 27일 출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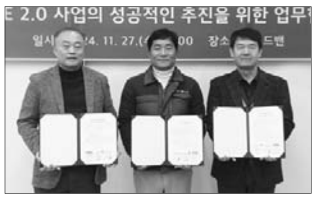
이 책은 최근 알파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그로 인한 고민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담론을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 인간은 왜 소유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유의 근거, △지적 창작물의 권리, △논의의 전제, △특허법상 발명자 인정 논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인격의 확대 논의, △대안적 논의들, △인공지능 지적소유 체계화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으로 구성하여 인공지능 창작물 소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소유 문제는 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가 왜 소유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고 하며,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담론과 문제의 대응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4차 산업 전문기술 인재 양성 ‘맞손’

전주대 친환경자동차학과, 골드밴·팀경영컨설팅과 협약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친환경자동차학과는 27일 ㈜골드밴, ㈜팀경영컨설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자동차학과는 성인 재직자들이 친환경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자동차 부품 전반에 걸친 4차 산업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연계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친환경자동차학과 강성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협업형 지역고등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장학습 기관 인재의 교육·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 연계 과정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현장실무능력, 친환경자동차지식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성인 재직자들의 성공적인 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밴 김수덕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당사의 25여 년간의 축적된 특장차의 다양한 용도에 맞는 냉동탑, 내장탑, 윙바디, 특수 차량 등 물류운송장비를 판넬 제작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재직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계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팀경영컨설팅 성창용 대표이사는 “도내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기업, 대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더 특별한 책나눔 행사’가 열렸다. 책나눔 대상 시설은 도내 보육원 1곳, 학력인정시설 2곳, 대안교육기관 1곳, 지역아동센터 2곳, 문해교육시설 1곳으로 총 1,000여 권을 기증했다.

‘책나눔도 더 특별하게’

전북교육청, 불용도서 교육소외계층 시설에 기부
보육원 1곳·대안교육기관 1곳 등에 총 1000여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교육소외계층 시설에 기부했다.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접견실에서 ‘더 특별한 책나눔 행사’를 가졌다.

책나눔 대상 시설은 도내 보육원 1곳, 학력인정시설 2곳, 대안교육기관 1곳, 지역아동센터 2곳, 문해교육시설 1곳으로 총 1,000여 권을 기증했다.

특히 이번 기증식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선정한 추천도서도 함께 보급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책나눔 행사를 계기로 내년부터 도내 학생교육문화회관 및 교육청도서관 불용도서를 공동관리해 나눔이 필요한 시설에 지속적으로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나눔식에 참여한 학력인정인화초 김양례 학생회장은 “글을 배우면서 책이 읽고 싶었는데 이렇게 책 선물 받으니 매우 기쁘다”며 “밤을 새서 읽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재활용 가능한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나눔문화에 기여하고,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기증된 책이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배움과 성장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